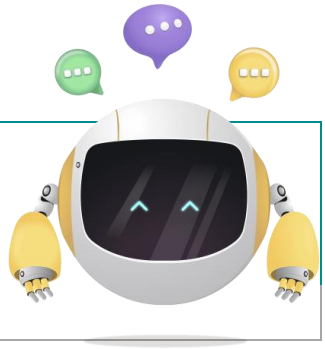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5.15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800V DC에 집중될 전력 모멘텀

이턴코퍼레이션 (ETN.US): 800V DC 포트폴리오에 집중

1Q26 Re: 역시 견조한 데이터센터 수주

- 매출액 74.5억 달러(YoY +17%), 조정 EPS 2.81달러(+3%)로 모두 컨센 소폭 상회
- 데이터센터 수주는 3~5년에 걸쳐 매출로 전환되며 2025년 건설 속도 기준 12년치로 1분기만에 1년치가 증가
- 북미 공급망에 영향을 주었던 1~2월 한파는 모두 마무리되어 3월에 반등 후 4월에도 강한 흐름
- 선행지표인 북미 협상 파이프라인은 YoY +81% 급증해 수주 모멘텀 이어져

예상을 상회한 램프업 비용

- 전례 없는 수요에 따라 FY2026년 연간 Organic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200bp 상향조정
- 북미 전력 부문 OPM은 1분기 25.6%로 램프업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투입 비용과 물량 증대에 따라 지난 분기 대비 4.2%p 하락
- 다만 1) 12개 공장이 램프업 완공 과정, 2) 4월 1일부터 가격 인상, 3) 램프업 비용이 FY25년 4분기부터 FY26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초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격 전가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 상저하고 흐름으로 가동률 증가와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해 하반기부터 다시 29~30%대 마진 회복이 가시적. 마진 우려보다 차세대 전력 모멘텀인 800V DC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합리적인 시점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US): 불확실성보다 차라리 까다로운 규칙을 선호

1Q26 Re: Calpine 인수 반영, Crane full-capa 승인 여부는 올해 하반기 내

- 매출액 111.2억 달러(YoY +64%)로 Calpine 인수 효과가 처음으로 반영되었으며 컨센을 큰 폭 상회
- 1분기에는 2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동(Pastoria Solar Project(105MW, Pin Oak Creek (460MW))
-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체결한 스리마일 발전소(Crane 프로젝트)은 2027년 재가동 및 2031년 연결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는 FERC로부터 전체 캐파 크레딧을 인정받는 단계

용량 중심에서 수급 중심으로 변하는 시장, 원자력 선호 지속될 것

- 원자력 PTC 증액과 우량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으로 2029년까지 EPS 성장률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FY26년의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11.00~12.00달러로 유지
- PJM의 규제 승인 전까지는 주가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규제 방향성처럼 미국 전력 시장이 용량 중심에서 에너지 수급 중심으로 변화한다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에 대한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US): 단기 실적 하회를 이겨내는 내러티브

1Q26 주요 실적 지표

- 1분기 매출 1.87억 달러(예상치 2.05억 달러)로 컨센서스 대비 -9.1% 하회. EPS는 -0.25달러 (예상치 -0.07달러)로 예상치 하회
- Lanteris 인수 마감일이 1월 13일으로 이전 12일분 미포함 영향이며 포함 시 실질 매출은 2억 달러. Lanteris 인수 효과로 매출 규모는 YoY 약 3배 증대, 매출총이익 3,0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7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GPM 16.1%). 조정 EBITDA는 270만 달러로 전년동기 -660만 달러에서 흑자 전환
- 1분기 신규 수주는 4억 달러 이상이며 수주잔고 11억 달러로 사상 최대. SDA Tranche 3 Tracking Layer와 5번째 CLPS 미션 계약 체결이 기여 요인
- 수주잔고의 약 60~65%는 2026년에 매출 인식될 예정이며, 나머지 35~40%는 2027년 이후 반영될 전망.
- 2026년 연간 매출 9억~10억 달러, 조정 EBITDA 흑자 가이던스 유지
- Lanteris 인수로 국방 관련 수주 채널 확보 효과 기대되며 NASA의 달 표면 인프라 프로젝트 등으로 향후 대형 수주 기회가 크다는 점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 요인

NASA Ignition으로 달 인프라 서비스 모델 구체화

- NASA Ignition은 단일 탐사선 프로젝트가 아니라, Artemis를 단발성 달 착륙 중심에서 달 표면 장기 체류와 영구 기지 구축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NASA의 달 인프라 조달 패키지
- NASA는 Ignition을 통해 달 기지 구축을 3단계로 추진. 1단계는 CLPS와 LTV를 활용해 로버, 과학장비, 기술실증 장비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단계이고, 2단계는 초기 거주·물류 인프라 구축, 3단계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달 기지로 확장하는 구조
- 이 과정에서 CLPS는 단순 과학장비 배송 프로그램에서 달 물류 인프라로 성격이 바뀌고 있음. NASA는 CLPS 2.0을 통해 10년 발주 기간, 15년 수행 기간,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후속 조달을 추진하며, 더 높은 미션 빈도와 달 표면·궤도 배송을 지원할 계획
- LTV도 단순 탐사용 로버가 아니라 달 표면 장기 운영을 위한 이동 인프라로 중요도가 상승. NASA는 유인·무인 로버를 통해 달 남극 지역에서의 이동, 자율주행, 원격운영, 표면 작업 지원 능력을 확보하려는 방향

AI/플랫폼

알파벳(GOOGL.US): Google·SpaceX의 궤도 데이터센터 논의 본격화

- Google과 SpaceX가 우주 궤도 데이터센터 구축을 논의 중

마이크로소프트(MSFT.US): Claude Code 라이선스 축소로 GitHub Copilot CLI 내재화 가속

-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부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던 Anthropic Claude Code 라이선스 대부분을 줄이고, Windows·Microsoft 365·Outlook·Teams·Surface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6월 말까지 GitHub Copilot CLI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아마존(AMZN.US): Amazon Now 30분 배송 확대

- 30분 이내 배송 서비스인 Amazon Now를 미국 수십 개 도시로 확대하고 있음

메타(META.US): 메타 AI, 암호화 '시크릿 채팅' 도입

- 메타 AI에 서버에 대화 로그를 저장하지 않는 첫 주요 AI 제품인 Incognito Chat을 도입

서비스나우(NOW.US): AI·보안 M&A 비용을 채권으로 조달

- 서비스나우는 인수 자금과 관련해 약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등급 채권 발행을 추진. 이번 조달은 아르미스 등 대형 AI·사이버보안 인수 이후 재무구조를 장기채로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오픈AI(비상장): OpenAI Deployment Company 출범

- OpenAI 매출총괄 Denise Dresser는 기업 AI 도입이 변곡점에 왔지만, CEO들이 최신 모델과 빠른 기술 변화, 즉 '복합적으로 쌓이는 혁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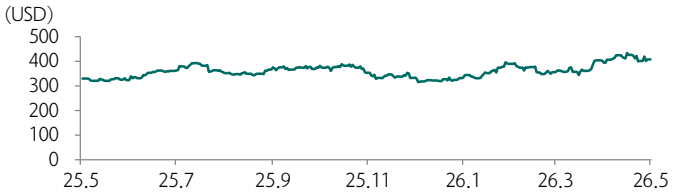
앤스로픽(비상장): 9,000억 달러 기업가치로 대규모 자금 조달 추진

- 3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 조달을 추진하면서 9,00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논의 중

이턴코퍼레이션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산업재
시가총액(십억달러)
156

최근 주가 추이



이턴코퍼레이션 (ETN.US): 800V DC 포트폴리오에 집중

1Q26 Re: 역시 견조한 데이터센터 수주

- 매출액 74.5억 달러(YoY +17%), 조정 EPS 2.81달러(+3%)로 모두 컨센 소폭 상회
- 데이터센터 수주는 3~5년에 걸쳐 매출로 전환되며 2025년 건설 속도 기준 12년치로 1분기만에 1년치가 증가
- 북미 공급망에 영향을 주었던 1~2월 한파는 모두 마무리되어 3월에 반등 후 4월에도 강한 흐름
- 선행지표인 북미 협상 파이프라인은 YoY +81% 급증해 수주 모멘텀 이어져

효율성 기준은 PUE에서 Tokens per Megawatt로, 냉각과 직류의 중요성 증가

- ETN은 최근 1년 내 액체냉각, 데이터센터 모듈형 인프라와 솔리드 스테이트 변압기(SST) 업체를 인수
- 현재 데이터센터 효율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Tokens per MW'은 기존 지표인 'PUE'와 비교되는 개념
- 효율성의 기준이 '적은 전력 낭비'에서 '투입 전력 대비 결과물'로 이동
- Boyd 냉각 사업 부문은 FY26년 연간 매출 17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1분기 매출은 YoY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주잔고 역시 지난 6개월동안 2배로 증가
- 교류에서 직류 아키텍처로 전환할 경우에도 최대 5%의 전력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800V DC 수주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어 27년 말~28년 초 출하 시작이 예상
- SST는 하이퍼스케일러를 포함해 약 1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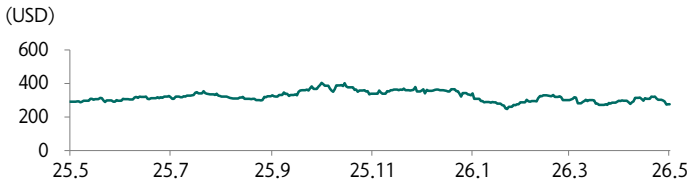
예상을 상회한 램프업 비용

- 전례 없는 수요에 따라 FY2026년 연간 Organic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200bp 상향조정
- 북미 전력 부문 OPM은 1분기 25.6%로 램프업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투입 비용과 물량 증대에 따라 지난 분기 대비 4.2%p 하락
- 다만 1) 12개 공장이 램프업 완공 과정, 2) 4월 1일부터 가격 인상, 3) 램프업 비용이 FY25년 4분기부터 FY26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초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격 전가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 상저하고 흐름으로 가동률 증가와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해 하반기부터 다시 29~30%대 마진 회복이 가시적. 마진 우려보다 차세대 전력 모멘텀인 800V DC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합리적인 시점

콘스텔레이션에너지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산업재
시가총액(십억달러)
110

최근 주가 추이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US): 불확실성보다 차라리 까다로운 규칙을 선호

1Q26 Re: Calpine 인수 반영, Crane full-capa 승인 여부는 올해 하반기 내

- 매출액 111.2억 달러(YoY +64%)로 Calpine 인수 효과가 처음으로 반영되었으며 컨센을 큰 폭 상회
- 1분기에는 2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동(Pastoria Solar Project(105MW, Pin Oak Creek (460MW))
-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체결한 스리마일 발전소(Crane 프로젝트)은 2027년 재가동 및 2031년 연결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는 FERC로부터 전체 캐파 크레딧을 인정받는 단계

데이터센터 전력 자급자족 규제: PJM의 RBP 양자계약은 올해 9월부터

- PJM 규제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
- 2026년 6월, PJM은 RBP(Reliability Backdrop Procurement) 최종 제안을 FERC에 제출할 예정이며 9월에는 하이퍼스케일러와의 양자계약을 체결할 예정
- 만약 양자 계약으로 전력을 다 구하지 못한다면 2027년 3월부터는 중앙 관리자로서 PJM의 개입이 시작될 공산이 커
- 지난해 공개된 텍사스 상원법안 6호는 대규모 전력사용자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ERCOT 지역의 데이터센터 개발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확정되자 거래가 다수 발생
- 불확실성보다는 차라리 까다로운 규칙을 선호하는 모습은 PJM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전
- CEG는 현재 PJM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규칙 재정을 시행하고 있어 2029년으로 언급되었던 코로케이션 시행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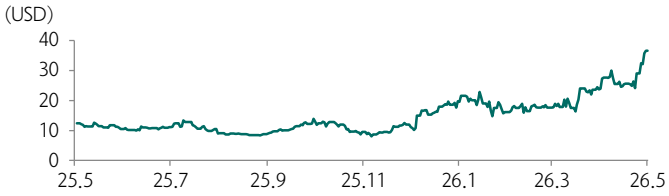
용량 중심에서 수급 중심으로 변하는 시장, 원자력 선호 지속될 것

- 원자력 PTC 증액과 우량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으로 2029년까지 EPS 성장률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FY26년의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11.00~12.00달러로 유지
- PJM의 규제 승인 전까지는 주가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규제 방향성처럼 미국 전력 시장이 용량 중심에서 에너지 수급 중심으로 변화한다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에 대한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인튜이티브 머신즈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우주
시가총액(십억달러)
5.8

최근 주가 추이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US): 단기 실적 하회를 이겨내는 내러티브

1Q26 주요 실적 지표

- 1분기 매출 1.87억 달러(예상치 2.05억 달러)로 컨센서스 대비 -9.1% 하회. EPS는 -0.25달러 (예상치 -0.07달러)로 예상치 하회
- Lanteris 인수 마감일이 1월 13일으로 이전 12일분 미포함 영향이며 포함 시 실질 매출은 2억 달러. Lanteris 인수 효과로 매출 규모는 YoY 약 3배 증대, 매출총이익 3,0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7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GPM 16.1%). 조정 EBITDA는 270만 달러로 전년동기 -660만 달러에서 흑자 전환
- 1분기 신규 수주는 4억 달러 이상이며 수주잔고 11억 달러로 사상 최대. SDA Tranche 3 Tracking Layer와 5번째 CLPS 미션 계약 체결이 기여 요인
- 수주잔고의 약 60~65%는 2026년에 매출 인식될 예정이며, 나머지 35~40%는 2027년 이후 반영될 전망.
- 2026년 연간 매출 9억~10억 달러, 조정 EBITDA 흑자 가이던스 유지
- Lanteris 인수로 국방 관련 수주 채널 확보 효과 기대되며 NASA의 달 표면 인프라 프로젝트 등으로 향후 대형 수주 기회가 크다는 점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 요인

Lanteris 편입 효과

- Lanteris 인수 이후 첫 주요 성과로 미 우주군 Space Systems Command의 Andromeda IDIQ에 선정. GEO 궤도에서 물체를 탐지·추적·식별하는 차세대 우주상황인식(space domain awareness) 역량을 구축하는 프로그램. 해당 계약은 조달 기간 10년, 최대 규모는 62.4억 달러. Lanteris의 1300 Series 위성 버스, 안정적 공급망, 장수명 GEO 위성 제작 경험이 차별화 요인
- 휴스턴 시설을 최근 몇 년간 2배로 확장했고, 캘리포니아의 생산 공간 60만 평방피트 이상을 활용할 수 있어 다수의 달 착륙선·위성 생산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음

Goonhilly 인수 발표와 M&A 전략

- Goonhilly Earth Station과 미국 자회사 COMSAT 인수 계약 체결을 발표. KinetX, Lanteris, Goonhilly를 통해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지상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우주 인프라를 운영하는” 수직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구조를 구축
- Goonhilly/COMSAT은 영국·미국 기반의 지상국 자산을 제공하며, 최대 44개 통신 안테나를 통해 약 200만km 거리까지 통신 가능. 달 궤도··GEO·LEO를 아우르는 통신·데이터 릴레이·PNT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
- Goonhilly의 현재 연매출은 약 1,400만 달러 수준. 단기 매출 기여 자체는 크지 않지만, NSNS와 TDRS 같은 우주-지상 네트워크 서비스 기회를 확보하는 데 전략적 의미가 큼

NASA Ignition으로 달 인프라 서비스 모델 구체화

- NASA Ignition은 단일 탐사선 프로젝트가 아니라, Artemis를 단발성 달 착륙 중심에서 달 표면 장기 체류와 영구 기지 구축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NASA의 달 인프라 조달 패키지
- NASA는 Ignition을 통해 달 기지 구축을 3단계로 추진. 1단계는 CLPS와 LTV를 활용해 로버, 과학장비, 기술실증 장비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단계이고, 2단계는 초기 거주·물류 인프라 구축, 3단계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달 기지로 확장하는 구조
- 이 과정에서 CLPS는 단순 과학장비 배송 프로그램에서 달 물류 인프라로 성격이 바뀌고 있음. NASA는 CLPS 2.0을 통해 10년 발주 기간, 15년 수행 기간,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후속 조달을 추진하며, 더 높은 미션 빈도와 달 표면·궤도 배송을 지원할 계획
- LTV도 단순 탐사용 로버가 아니라 달 표면 장기 운영을 위한 이동 인프라로 중요도가 상승. NASA는 유인·무인 로버를 통해 달 남극 지역에서의 이동, 자율주행, 원격운영, 표면 작업 지원 능력을 확보하려는 방향

AI/플랫폼

알파벳(GOOGL.US): Google·SpaceX의 궤도 데이터센터 논의 본격화

- Google과 SpaceX가 우주 궤도 데이터센터 구축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음
- SpaceX는 향후 AI 연산을 우주에 배치하는 것이 지상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는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있고, Google도 Project Suncatcher를 통해 2027년 프로토타입 위성 발사를 계획하는 등 우주 기반 컴퓨팅 실험을 병행 중

마이크로소프트(MSFT.US): Claude Code 라이선스 축소로 GitHub Copilot CLI 내재화 가속

-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부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던 Anthropic Claude Code 라이선스 대부분을 줄이고, Windows·Microsoft 365·Outlook·Teams·Surface 등을 담당하는 Experiences + Devices 조직을 중심으로 6월 말까지 GitHub Copilot CLI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표면적 이유는 Microsoft 내부 개발환경·보안 요건에 더 깊게 맞출 수 있는 자체 주도형 에이전트 코딩 CLI로 통일하겠다는 것이지만, 운영비 절감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Anthropic 모델 접근 자체가 끊기는 것은 아니며, Claude 모델은 Copilot CLI, Microsoft Foundry, Microsoft 365 Copilot 등에서 계속 활용될 예정

아마존(AMZN.US): Amazon Now 30분 배송 확대

- 30분 이내 배송 서비스인 Amazon Now를 미국 수십 개 도시로 확대하고 있음
- 대상 품목은 신선식품, 생활필수품, 건강·유아·반려동물용품, 일부 전자제품 등 '즉시 필요' 수요가 큰 상품군이며, Prime 회원은 주문당 3.99달러, 비회원은 13.99달러를 내는 구조

메타(META.US): 메타 AI, 암호화 '시크릿 채팅' 도입

- 메타 AI에 서버에 대화 로그를 저장하지 않는 첫 주요 AI 제품인 Incognito Chat을 도입
- 해당 기능은 사용자가 채팅 세션을 종료하면 메시지가 사라지고, 일반적인 임시 채팅과 달리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적용해 메타조차 대화 내용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움

서비스나우(NOW.US): AI·보안 M&A 비용을 채권으로 조달

- 서비스나우는 인수 자금과 관련해 약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등급 채권 발행을 추진. 이번 조달은 아르미스 등 대형 AI·사이버보안 인수 이후 재무구조를 장기채로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 실제 40억 달러 채권 발행에는 38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이 몰려 수요가 딜 규모의 거의 10배에 달했음

오픈AI(비상장): OpenAI Deployment Company 출범

- OpenAI 매출총괄 Denise Dresser는 기업 AI 도입이 변곡점에 왔지만, CEO들이 최신 모델과 빠른 기술 변화, 즉 '복합적으로 쌓이는 혁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
- 이에 OpenAI는 OpenAI Deployment Company를 출범시키고, Tomoro 인수를 통해 약 150명의 현장 배치형 AI 엔지니어와 전문가를 확보해 고객사 내부에 직접 투입하는 구조를 만듦. 이 조직은 OpenAI가 과반 소유·통제하며, TPG·Advent·Bain Capital·Brookfield 등 19개 파트너와 40억 달러 이상의 초기 투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의 핵심 업무 재설계, AI 시스템 구축, 운영 적용까지 지원할 예정
- OpenAI가 단순 모델·API 공급자를 넘어 팔란티어식 현장 엔지니어링과 컨설팅 레이어까지 확장해 기업 AI 예산을 더 깊게 포착하려는 전략

앤스로픽(비상장): 9,000억 달러 기업가치로 대규모 자금 조달 추진

- 3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 조달을 추진하면서 9,00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논의 중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5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